

2004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축하 메시지

농업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큼니다. 정부도 항상 귀담아 듣고, 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맞서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농업에서 희망을 봅니다. 바로 12만 농업경영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일구어낸 성공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해법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해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